

## 영어 지각동사의 인지적 연구

지인영  
(한국체육대학교)

### 1. 머리말

언어는 유한한 언어자원으로 무한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의 경제성, 혹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영어동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신체적 지각행위를 나타내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정신적 영역의 추상적 인지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see*, *hear* 등의 영어의 대표적 지각동사가 보이는 다의어 현상을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 동사들에 대한 심리적 의미구조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a. I can't *see* anything in this darkened room.  
b. I wanted to *see* the movie, but I had no time.  
c. Oh, now I *see* what you mean.  
d. Go and *see* who is at the door.  
e. Did you *see* him at the party yesterday?  
f. You'd better *see* a doctor.  
g. She is *seeing* too much of the same boy.  
h. I couldn't *see* today's paper.
- (2) a. We all *heard* some strange sound.  
b. Did you *hear* the piano from his house?

---

【Keywords】 English perception verbs, Polysemy, metaphor, metonymy, cognitive semantics, conceptual chain, cognitive domain

- c. I *heard* my name called.
- d. Have you *heard* anything about this incident?
- e. They refused to *hear* our side of the argument.
- f. I have to *hear* a case this afternoon.
- g. The Lord has *heard* my prayers.

(1)-(2)의 예문들은 *see*와 *hear*의 다양한 의미들의 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1a)의 *see*와 (2a)의 *hear*가 눈과 귀를 이용한 지각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나타내는 반면, 나머지 예문들은 단순한 신체적 지각행위를 넘어서서, 그 지각행위를 통한 정신적 인지활동이나 인식행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각동사가 다의어로 사용되는 근거를 은유와 환유의 창의적 기능에 근거한 의미확대 현상으로 간주하고, 의미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지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이전 연구에 대한 검토로서 객관주의 의미론자들과 인지의미론자들의 두 가지 입장을 요약하고, Lakoff & Johnson(1980), G. Lakoff(1987), Taylor(1995) 등의 은유와 환유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Langacker(1987)의 개념을 바탕으로 Cruse(1986)의 맥락 조율(contextual modula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각동사의 다의성과 그 근거를 분석하여, 지각동사가 신체적 지각과정의 구체적 경험을 추상적인 인지적 영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언어의 창의적 은유, 혹은 환유 개념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지각동사의 다의성은 사용되는 맥락이나, 같이 쓰이는 어휘에 따라, 은유나 환유 어느 한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기보다는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함께 작용해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2. 객관주의 의미론과 인지의미론

### 2.1. 객관주의 의미론

언어이론의 과학화를 추구해온 많은 형식이론가들은 수학적 모형과 논리를 이용한 형식화 작업을 통해 언어이론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론의 형식화는 객관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론의 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 어휘의 의미는 어휘표현과 객관적 실제세계에서 그 어휘가 지시하는 실제 대상물간의 관계로 간주되었다.

Lakoff(1988)는 객관주의 의미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진리조건적 의미원리: 의미는 지시(reference)와 진리(truth)에 근거한다. 둘째, 진리의 대응이론: 진리란 상징기호와 실제세계의 상황의 대응관계에서 형성된다. 셋째, 객관적 지시원리: 상징기호와 실제세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옳은' 방법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구성된 객관적 이론들은 세계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기호로 환원하는 주체인 인간의 역할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대표적인 형식이론 중 하나인 진리조건적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은 어휘표현의 외적의미와 명제적 의미에 관심을 두고 자연언어를 형식언어로 바꾸는 해석원리를 세우는데 공헌하였지만, 언어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인간의 개념 구조, 혹은 인지구조는 완전히 배제한 채 언어이론체계를 구성하였다.

- (3) a. I see the cat on the mat.  
b. I see what you mean.

가령 (3a)와 (3b)의 *see*는 동일한 언어형태로써 진리조건적 의미론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동일한 진리조건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3)의 두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see*의 진리조건은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형식주의 입장에서는 (3)의 두 문장에 쓰인 *see*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see<sub>1</sub>*, *see<sub>2</sub>*로 간주하여 서로 다른 진리조건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구나 *see<sub>1</sub>*, *see<sub>2</sub>*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진리조건적 의미론에서는 언어표현과 세계 내의 대상물과의 객관적 관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어표현을 처리하는 인간의 추상적 인지구조를 언어체계의 연구대상 범위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보

면, 신체적 활동을 나타내는 (3a)의 *see*와 정신적 활동을 나타내는 (3b)의 *see*는 서로 독립적이고 무관한 활동을 가리키는 어휘로서 동음이의어로 취급되는 셈이다.

한편 이러한 형식적 규칙이 지배하는 객관주의 이론은 디지털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와 같은 일종의 기계로 간주하는 입장(Mind-as-Machine approach)으로 이어졌다. Newell(1980)은 마음을 물리적인 기호체계(Physical Symbol System)로 부르고,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기호를 조작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이며, 그 처리과정을 일종의 계산과정으로 간주하였다. 처리규칙에 근거한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형이 인지과정과 작용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몸과 마음을 구분하여 마음이란 실체가 없고 추상적이며 신체적 활동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라는 고전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Mind-Body distinction)에서 온 것이다.

종래의 형식의미론의 기계적인 작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구체적 발화상황을 포함시키고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자 시도한 상황의미론(Situation Semantics)에서는 특히 지각 보고문(Perceptual Report)에 관심이 있었다.

- (4) a. Austin *saw* a man get shaved in Oxford.  
 b. Austin *saw* that a man got shaved in Oxford.

Barwise and Perry(1983)는 *see*를 대표적인 태도동사(attitude verb)로 보고  $SEE_n$ 과  $SEE_t$ 로 구분하였다.  $SEE_n$ 은 예문(4a)의 *see*처럼 개체와 특정상황, 즉 장면(scenes)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인식상 중립인 지각 보고문(epistemically neutral perception report)을 형성한다고 본 반면,  $SEE_t$ 는 (4b)와 같이 개체와 인식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식상 긍정적인 지각 보고문(epistemically positive perception report)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SEE_n$ 과  $SEE_t$ 의 차이는 주체가 자신이 보고 있는 단일 상황과의 관계를 말하는지 아니면, 양립 가능한 다른 대체 상황들의 집합과의 관계를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

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단순한 지각을 나타내는 SEE<sub>n</sub>과 지각을 통한 인식을 나타내는 SEE<sub>i</sub>를 구분하여 설정하여 다른 인식동사 KNOW, BELIEVE, ASSERT, DOUBT의 의미관계를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형식주의 의미론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의미론은 언어의 비명제적 차원, 혹은 비유적인 차원에도 관심을 돌려 지나친 객관주의 입장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객관주의와 마찬가지로 형식주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 SEE<sub>n</sub>과 SEE<sub>i</sub>의 의미관계를 다의적 관계로 기술하는데는 이론적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황의미론을 포함한 객관주의 의미론자들은 눈으로 실제 대상물을 보는 행위, 즉 신체적 지각을 나타내는 *see*가 ‘알다’, ‘이해하다’ 등의 정신적 인식작용을 의미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다. 즉, 객관적 상황이 이해되는 정신적 과정이나 기술하는 인간의 마음보다는 발화와 객관적 실체의 관계, 또한 언어의 외적인 의미에 주로 초점을 두어 은유나 환유와 같은 언어의 창의적인 기능을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David Lewis(1972)는 객관주의 의미론자들이 언어에 대한 인간의 이해과정이나 언어의 용법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있다. 그는 언어연구의 주제를 첫째, 세상의 여러 측면을 기호와 연관시키는 추상적인 의미체계로서의 언어기술 혹은 문법기술, 둘째, 이러한 특정한 의미체계가 사용되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기술의 두 가지로 나누고, 형식적 입장은 첫째 주제에 관심이 있으며, 두 번째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주제가 섞이게 되면 혼동이 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연구의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식주의 의미론의 기본적 이론틀로서는 두 번째 주제를 다룰 수 없다는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인지 의미론

Langacker(1987, 1991)를 중심으로 Lakoff(1987), Fauconnier(1997) 등에 의

해 발전된 인지 언어학은 객관주의적 형식이론과 달리, 인간이 실제세계를 경험하고 인지하며, 언어로 기술하는 마음의 작용과 인지과정에 관점을 두고 있다. 인지언어학자들도 어휘의 의미를 단어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고자 했지만, 인지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세계란 단순히 실재하는 물리적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경험적 영상(human experiential picture of the world)까지도 포함한다. 인지언어학자들의 세계란 인간의 경험 속에 존재하는 세계,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경험적으로 인지한 세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때로 객관적 세계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객관적 형식주의자들의 입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적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 혹은 백과사전적 지식에 근거한다고 보고, 따라서 언어능력과 일반인지능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자구적 언어(literal language)와 비유적 언어(figurative language)를 같은 맥락에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은유현상과 환유를 일탈적 언어현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극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특히 Langacker는 의미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동일시하면서 의미구조(semantic structure)란 언어관습에 의해 맞게 형성된 개념화이며, 인지영역(cognitive domain)에 따라 상대적으로 특징지워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의미는 인지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정은 지각동사의 다의어 현상을 설명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리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 구체적 영역과 추상적 영역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 이동으로 인지영역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개념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이론가들은 몸과 마음을 단순히 이분화하여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과정 내에서 신체의 동작이나 지각행위가 마음의 작용, 혹은 정신적 활동으로 확대되고 유추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설명한다. 본 연구도 인지의미론자들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여 지각동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 2.3. 은유와 환유

은유와 환유는 전통적인 수사학과 철학에서 많이 논의되어온 개념으로서 지각동사의 다의적 의미들의 의미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의미확대, 의미변화의 근거를 은유와 환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은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빌어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Lakoff(1987)는 은유가 기술하고자 하는 목표영역(target domain)과 비교 영역인 근원영역(source domain)간의 연결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환유는 하나의 단일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연결로 간주한다.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와 환유를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근거해서 연구하고, 이러한 비유적인 언어는 언어와 의미, 인간에 대한 이해 등 인식론 및 존재론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구조의 설정이 은유이해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은유와 환유를 예시하면서 일상적인 사고나 경험 중 많은 부분들이 은유나 환유와 같은 창의적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인지되고 이해된다고 설명한다. 다음 (5)의 예문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SEEING IS TOUCHING이라는 은유개념을 전제로 쓰이는 예이다.

(5) SEEING IS TOUCHING; EYES ARE LIMBS.

- a. I can't take my eyes off her.
- b. He sits with his eyes glued to the TV.
- c. Her eyes picked out every details of the pattern.
- d. Their eyes meet.
- e. She never moves her eyes from his face.
- f. He wants everything within reach of his eyes.

(Lakoff & Johnson 1980: 50)

(5)의 예문들에서는 보는 행위가 접촉하는 행위와 동일시되고, 시선이 일종의 수축처럼 간주되고 있다. (5a)와 (5b)에서는 마치 눈 자체를 지각대상애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개체처럼 간주되나 실제로는 추상적인 시선을 가

리키는 의미이다. (5c)는 눈이 마치 손처럼 지각대상을 골라낸다고 간주하지만 이것 역시 시선을 가리킨다. (5d)는 눈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서 직접 서로 마주친다고 보았지만 사실은 눈길, 즉 시선이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5f) 역시 시각적인 범위를 감시나 통제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한정적인 시각 영역은 개인적인 영향력이나 통제력의 영역을 나타낸다.

(6) That problem is beyond my scope.

예문(6)은 시각적인 범위를 가리키는 *scope*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장 내에서는 시각적 지각이 가능한 물리적 영역이 아니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추상적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요즘 통제 영역, 혹은 범위를 나타내는 *scope*은 그리스어로 ‘시각, 목표’(sight, aim)를 나타내는 *skopos*에서 온 말이다.

다음은 THE EYES ARE CONTAINERS FOR THE EMOTION 이라는 은유개념이 전제되어 사용되는 예문이다.

(7) THE EYES ARE CONTAINERS FOR THE EMOTION.

- a. I could see the fear in his eyes.
- b. His eyes were filled with anger.
- c. There were passion in her eyes.
- d. His eyes displayed his compassion.

이들은 이외에도 일상에서 쓰이는 환유를 다음 예문을 통해 예시하였다.

- (8) a.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b. He is in dance.  
 c. The Times hasn't arrived at the Press conference yet.  
 e. Mrs. Grundy frowns on the blue jeans.

(Lakoff & Johnson 1980: 35)



(8a)는 대표적인 환유의 예로서 *the ham sandwich*라는 표현이 그 음식을 주문한 사람을 지시하고 있다. (8b)는 *dance*가 *dance profession*을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8c)의 *the times*는 *the Times*의 기자, (8d)의 *the blue jeans*는 블루진을 입은 사람을 지시한다.

Lakoff & Johnson에 의하면 은유는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빌어 이해하는 이해차원의 문제이며, 환유는 주로 사물을 지칭하는 지시적 기능(referential function)의 문제로 다루었다. 사실상 환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주로 명사표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Taylor (1995)에서도 보여진다. Taylor는 환유를 한 개체의 이름을 사용하여 인접한 다른 개체를 지시하는 표현방식이라고 정의하고,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9) 1. 그릇 ⇒ 그릇의 내용물  
The kettle is boiling.
2. 생산자 ⇒ 생산품  
Does he have any Picasso?  
Dickens is on the top shelf.
3. 부분 ⇒ 전체  
We need a some new faces around here.
4. 기관 ⇒ 기관 책임자/관계자  
The government has stated.
5. 장소 ⇒ 장소에 위치한 기관이나 인물  
The meeting between Washington and Mosque was held last year.
6. 개체 ⇒ 유형  
This jacket is our best-selling item.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릇이 그릇의 내용물을 지시하거나 작가가 작품을 대신하는 경우, 또한 부분으로 전체를 지시하는 환유는 일상 언어에서 상당히 관습화되어있으며, 매우 창의적으로 일어난다. 환유의 이러한 창의성은 어느 표현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확대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

다. 또한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볼 때 환유의 문제는 단지 지시성을 갖는 명사표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의미를 개념화와 동일시하는 인지의미론의 입장에서 보면 명사표현의 의미구조와 동사표현의 의미구조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지각동사의 다의성

#### 3.1. 지각동사의 의미변화

Sweetser(1990)는 영어지각동사의 의미변화에 대한 어원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던 어휘가 후대에 와서 추상적인 의미로 바뀌는 역사적 변화를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각동사의 역사적 의미변화는 신체적 지각을 나타내는 구체적 의미로부터 정신적,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추상적 의미로 확대되어 일종의 ‘신체로서의 마음 은유’(Mind-as-Body Metaphor)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유럽어에서 이러한 의미변화는 매우 일관적이고도 널리 편재되어 있음을 예시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지각동사 *see*의 의미확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10) *seeing* → *understanding*

IE root *weid* - ‘see’:

Greek *eidon* ‘see’, perfective *oidoa* ‘know’ (> English *idea*)

English *wise*, *wit*

Latin *video* ‘see’

Irish *fios* ‘knowledge’

(10)은, ‘*seeing*’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understanding*’의 의미까지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유럽어에서 ‘see’의 의미를 가진 어근 *weid-*는 그리스어의 *eidon*으로 바뀌고, 완료형 *oidoa*는 ‘know’의 의미를 갖게되었으며, 이는 영어의 *idea*의 어원이 되었다. 또한 *weid-*는 영어에 와서 *wise*, *wit*로, 라틴어에

서는 'see'의 의미인 *video*, 아일랜드어에서는 'knowledge'의 의미를 가진 *fios*로 되었다. (11), (12)에서는 *hear*와 *taste*의 의미 변화를 보여준다.

(11) hearing → paying attention to, obeying

IE \**k'leu-s-*: GK *kluto*: 'hear'

English *listen*

Danish. *lystre* 'obey'

Rus. *slusat* 'listen to'

*slusat's'a* 'obey'

(12) tasting → choosing, expressing preferences

possible IE root \**g'eus* 'taste'

Greek *geuomai* 'taste'

Latin *gustare* 'taste'

Gothic *kiusan* 'try'

Old English *ceosan* 'choose'

Sanskrit *jus-* 'enjoy'

이러한 의미변화의 역사적인 연구는 의미변화의 일정한 방향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동시에 다의어의 형성과 의미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즉 지각동사가 '신체로서의 마음-은유'에 의해 의미가 확대되는 현상이 여러 언어에 걸쳐 보편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인간이 세상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방법이 보편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의미 이론의 과제일 것이다.

### 3.2. 활성화

인지 언어학의 기본적인 가정 중 하나는 언어적 지식이 백과사전적 지식, 세상적 지식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념은 반드시 다른 개념의 배경에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언어능력이 다른 인지능력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Langacker(1991)는 윤곽(profile)과 바탕(base)의 영상(imagery) 개념을 이용하여 의미구조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원(circle)의 일부인 호(arc)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원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Langacker는 호를 윤곽으로, 배경이 되는 원은 바탕이라 부른다. 즉 단어의미에 대해 백과사전적 정의를 가정한다면 바탕은 모습을 개념화하는데 배경으로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지식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곽에서 문장의 실제 의미에 기여하는 부분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성역(Active Zone: AZ)<sup>1)</sup>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어떤 개체가 어떤 의미구조의 서술(predication)에 포함될 때 일반적으로 그 개체의 특정한 측면, 즉 활성역만이 그 관계에 참여한다고 본다. Langacker에 의하면, 어떤 개체의 모든 부분이 어떤 서술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며, 활성역 개념은 이미 언어사용에 쓰이고 있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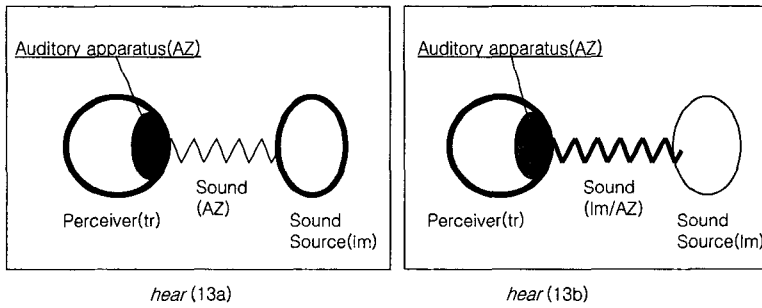
다음 예를 보자.

- (13) a. She *heard* the piano.  
 b. She *heard* the sound of the piano.

(13a)는 *the piano*의 환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예문이지만 지각동사 *hear*의 의미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예문이다. 즉 (13a)의 *the piano*는 *the sound of the piano*대신 쓰인 경우이다. 전통적으로는 (13a)의 *the piano*는 (13b)의 *the sound of the piano*로부터 *the sound of*를 삭제하는 변형규칙을 적용하여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Langacker는 술어 *hear*자체가 ‘(소리나는 물체의) 소리를 듣다(hear the sound of (noisemaking object))’를 의미구조로 즉, 윤곽으로 갖는다고 보고, 따라서 소리는 반드시 의미결정에 참여하는 활성역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백과사전적 의미를 전제한다면, *hear*는 취하는 목적어가 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목적어와 관련된 소리를 실질적인 목적어로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

1) 활성역이란 초점영역 내에서 주어진 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탄도체(trajector: tr)와 지표(landmark: lm)의 일부분을 가리킨다.

아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hear*의 이러한 의미속성에 맞는 소리가 실질적인 내용 목적어로 기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활성화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종래의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 개념과도 관련되는 개념으로 술어와 그 취하는 논항 간의 양립가능성(compatibility)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음 그림과 같이 (13a)와 (13b)의 의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13)의 의미구조

즉 (13a)의 목적어 *the piano*는 단지 지표(lm)로서의 소리 출처(sound source)만을 나타낼 뿐이며, 실제로는 *the sound of the piano*가 활성화(AZ)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소리를 활성화에 들어오게 하는 데는 *hear*의 의미가 기준이 된다. *hear*는 소리의 지각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따라서 (13)의 *hear*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수적인 청각기관과 소리가 의미구조에서 활성화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13a)와 (13b)에서 둘 다 auditory apparatus와 sound가 AZ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지 (13a)와 (13b)의 차이는 *sound of*가 명시적으로 쓰였는가의 차이인데 이는 바탕에 있는 sound가 윤곽(profile)으로 드러나는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에 근거해 *see*가 쓰인 다음 예를 보자.

(14) I saw my name on the board.

(14)는 *see*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의미, 즉 시각적 지각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Langacker의 백과사전적 의미관점을 받아들인다면 *see*는 ‘가시적 형태를 눈으로 지각한다(perceive through eyes some visible sight)’는 의미를 가지면서, 윤곽으로 드러나는 목적어와 관련된 가시적 형태를 내용적인 목적으로 취할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목적어로 기능한다는 것은 바로 문장의 전체의미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며, 활성화역으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표면적 목적어 *my name*은 여러 가지 의미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14)에서는 술어 *see* 때문에 가시성을 가진 문자적 형태로서의 의미측면이 활성화역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아마도 (14)의 *saw*를 *hear*로 바꾼다면 *hear*가 요구하는 내용적 목적어로서의 속성 때문에 *my name*의 음성적 형태가 활성화역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활성화역 현상은 Cruse(1986)의 맥락 조율(contextual modulation)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my name*이 나타내는 많은 측면 중에서 함께 쓰이는 술부를 비롯한 맥락에 의해서 양립가능한 측면이 부각되는 조율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성화역과 맥락 조율의 개념을 지각동사에 적용해 지각동사의 다의성을 분석해본다.

### 3.3. *See*의 의미연쇄

이제 *see*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5) The little boy saw the red sign, but he couldn't see what it meant.

(15)의 *saw*는 빨간 신호등을 눈으로 지각하는 행위를 나타내며 *see*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see*는 그 빨간 신호등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saw*는 신호처리(signal processing)의 단계이며, *see*는 상징처리(symbol processing)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신호처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신체적 지각능력에 근거하여 지각적 자극으로서의 신호를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징처리는 그 신호의 형태와 의미로 구성된 상징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감각적으로 지각된 형태가 갖는 의미를 얻어내는 능력은 처리자의 지식이나 추론 능력, 인지능력에 근거한다고 보인다. 상징처리는 신호를 지각한 다음 단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신호처리 과정을 전제해야 한다. 맥락에 따라 신호처리, 혹은 상징처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6) a. Go and *see* who is at the door.  
 b. I *see* someone at the door.  
 c. I *see* John at the door.

(16a)의 *see*는 신호처리와 상징처리 둘 다 의미할 수 있다. 문소리가 났을 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라면, 신호처리 단계라 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왔는데 신원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상징처리의 의미이다. 이 때 가능한 대답으로 (16a)의 *see*는 사람을 보았을 뿐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호처리의 의미이며, (16c)의 *see*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John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말이므로 상징처리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징처리는 신호처리가 반드시 전제되고 있다. 즉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16c)와 같은 상징처리는 신호처리 이후 즉각적으로 일어나며,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 예는 *see*가 간접적인 지각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 (17) I could *see* the fear in his eyes.

앞에서 *see*는 ‘가시적 형태를 눈으로 지각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윤곽으로 드러나는 목적어와 관련된 가시적 형태를 내용적인 목적어로 취한다고 하였다. (17)은 *see the fear*라는 표현에서 은유와 환유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7)에서 제시한대로 THE EYES ARE CONTAINERS FOR

THE EMOTION이라는 은유를 바탕으로 눈이라는 그릇에 두려움을 담을 수 있다는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the fear*라는 추상적 감정의 개념이 그릇에 담겨질 수 있는 구체적, 물리적 내용을 가진 개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상적 영역의 개념을 구체적 영역의 그릇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은유기능이다. 게다가 *see*의 목적어로서 *the fear*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신호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점 또한 일종의 은유이다. 눈으로 보여질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해하는 은유방식인 것이다. 여기까지는 목적어로 오는 논항의 의미가 술어의 의미기준에 맞춰 조율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하나 가능한 관점은 목적어 논항 *the fear*의 의미를 기준으로 지각동사 *see*의 의미가 맥락적으로 조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상적 감정 *the fear*는 눈으로 지각할 수 없다. 가시적이지 않은 *the fear*를 가시적 신호로 지각한다는 표현을 비정상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적합한 의미를 찾는다면, 이때의 *see*는 단순한 신호처리 단계의 지각행위가 아니라, 눈으로 지각하는 신호처리 단계를 거쳐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상징처리의 인지 혹은 인식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감각기관을 통해,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 실제로 인간의 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눈의 정보처리 방식이 유사하게 마음, 혹은 이성의 정보처리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즉 감각적 지각단계로부터, 인지와 이해단계, 그리고 인간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판단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7)의 *see*는 시각적 지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다른 차원의 지각행위 즉 공감각적 의미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즉 *the fear*라는 구체적 대상을 눈으로 지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정이나, 눈빛, 모습 등을 신호로 지각하고 *the fear*를 감지, 혹은 추론한다는 의미를 *see*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17)의 *see*는 1, 2, 3단계로 연쇄된 많은 의미 측면 중 *the fear*의 의미기준에 맞춰서 맥락적으로 조율되어 단순히 눈으로 지각하는 의미측면보다는 이를 전제로 의미적으로 연쇄된 ‘느끼다’, ‘알다’의 의미개념 측면이 활성화되어 부



각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7)의 *see*의 용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 개념을 상징하는 환유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 다음 환유 예를 보자.

(18) We need a some *new faces* around here.

(18)에서는 *new faces*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즉 부분을 언급하지만, 그 부분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다. 경우에 따라 *brains*나 *hands*가 쓰이는 것도 같은 환유의 방법이다. 아마도 특별히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18)대신 (19)을 사용할 것이다.

(19) We need a some *new brains* around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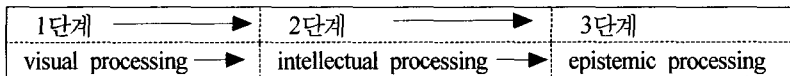
사물의 부분으로 전체 사물을 지칭하는 방법으로 환유가 사용되었다면, 행위를 나타내는 슬어의 경우도 부분개념으로써 연속선상의 연쇄된 개념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 지각경험, 즉 신호처리 단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see*가 신체적 지각을 포함한 정신적 이해, 인식과정, 즉 상징처리 단계까지도 연쇄적으로 엮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신체적 영역으로부터 정신적 영역으로 영역이동(domain transfer)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또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개념적 환유라 간주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17)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THE EYES ARE CONTAINERS FOR THE EMOTION.라는 은유와 *the fear*의 은유, *see*의 개념적 환유기능이 서로 어우러져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전체의미를 형성하는데 있어 함께 쓰이는 어휘의 어느 의미측면이 동원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다의어의 은유나 환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see*는 눈에 의한 직접적 지각행위 즉, 신호처리과정과, 그 지각된 신호의 상징적 의미를 처리하는 상징처리과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식 습득과 이해과정, 지각내용에 근거해 추론되는 간접적 지식의 습득과정 등, '보다'

라는 단순한 지각경험행위로부터 ‘알다’라는 인식적 경험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인식과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도 *see*는 인식동사 *know*, *understand*, *believe* 등과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see*의 의미를 다음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2> *see*의 의미연쇄

<그림 2>는 *see*의 의미영역을 편의상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신호처리 단계와 상징처리단계, 그리고 상징처리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직접적인 지식 습득과 추론을 통한 간접적인 지식습득, 인식의 의미연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1단계는 신호처리 단계의 지각 경험단계를 나타내며, 2단계는 상징처리 단계로서 지각을 통한 직접적인 지식 습득의 단계이며, 3단계는 더 나아가 지각한 상황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내거나, 지각자 혹은 정보처리자의 배경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이해, 인식이나 판단의 단계까지 나타낸다. 경험적으로 보면 보는 행위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다. 또 한가지 사실을 아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다른 사실과의 관계 추론, 유추를 통해 제3의 다른 사실을 알아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즉 눈으로 보고, 알고, 이를 판단하는 인식 과정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지경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림 2>의 각 단계의 의미는 또다시 세분화되어져서 1단계의 의미도 단순한 지각행위만이 아니라 시각적 지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2단계와 3단계의 의미차이에 관련해서, Dretske(1969)는 정신적 인지를 나타내는 *see*를 1차적-*see*(primary *see*)와 2차적-*see*(secondary *see*)로 구분한 바 있다. 다음 예를 보자.

(20) I *saw* that the tree was whipping around, so I *saw* that the wind was blowing.

(20)의 첫째 *saw*는 1차적-*see*로 지각한 상황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얻는 정보이다. 두 번째 *saw*는 2차적-*see*의 예로서 세상적 지식이나 추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다. Dreske의 일차적 *see*는 2단계 의미로, 이차적-*see*는 3단계의 의미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림 2>에 나타낸 *see*의 의미단계는 경우에 따라 1단계의 의미나 2단계의 의미, 또한 3단계의 개별의미로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1단계와 2단계가 연쇄된 의미로, 그리고 2단계와 3단계가 연쇄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어느 단계의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맥락에 따라 조율되어 특정 단계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림 2>의 의미연쇄를 근거로 *see*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 다음 예를 살펴보자.

- (21) a. I *see* a place to park over there.  
 b. I wanted to *see* the movie, but I had no time.  
 c. Go and *see* who is at the door.  
 d. I can't *see* what you mean.  
 e. I'd better *see* a doctor.  
 f. I couldn't *see* today's paper.  
 g. Let me *see*, how does that song go?

(21a)는 *see*의 가장 기본적인 지각단계의 의미이다. (21b)의 *see*는 즐기거나 구경하는 의미로 일단 눈으로 보는 단계가 전제된다. (21c)는 (16)에서 논의된 예문으로 1단계와 2단계가 연쇄된 의미, 즉 'see and know'의 의미로서 눈으로 보고 알아내는 단계이다. (21d)의 *see*는 알고 이해하는 2단계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또한 *see*의 각 단계의 의미가 필연적으로 함의관계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맥락에 따라 개별적인 의미로 혹은 연결되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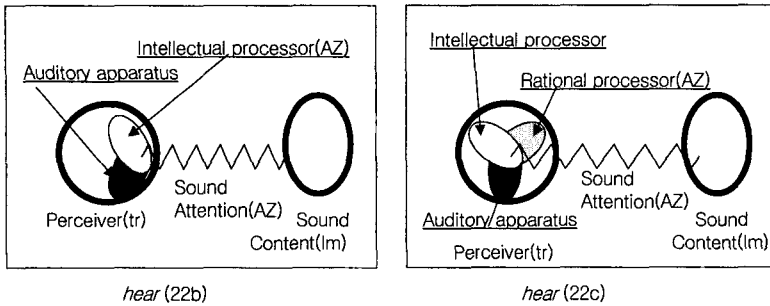
로 나타난다. (21d)는 실제로 눈으로 보는 지각 행위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혹은 오히려 귀로 듣고 나서 발화하는 문장으로도 적절히 쓰일 수 있다. 즉 1 단계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2단계, 3단계의 의미로 적절히 쓰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see*가 영역이동을 해서 2단계의 의미가 이미 굳어진 경우이며, 그 상태에서 특정의미가 부각되어 개념적 환유가 일어난다고 간주할 수 있다. (21e)의 경우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만나야하고 만난다는 것은 눈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1단계와 2 단계 의미가 연결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1f)는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은 거기에 인쇄된 활자를 보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 독서한다고 할 수 있다. (21g)도 상황을 보고 생각해 본다는 것으로 상징처리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 3.4. 지각동사의 의미구조

이제 Langacker의 윤곽(profile)과 바탕(base)의 영상(imagery)개념을 이용하여 앞 절에서 분석한 연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지각동사의 의미구조 모형을 설정해본다. 우선 3.2에서 Langacker가 제시한 *hear*의 의미구조를 기본으로 *hear*의 인지적 의미구조를 나타내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 (22) a. I *heard* the bird sing.  
 b. He will *hear* your prayer.  
 c. Children have to *hear* their parents.

(22a)는 (13)에서 제시된 예문과 마찬가지로 신호처리단계의 의미로 3.2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b)는 기도나 탄원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며, 승낙한다는 의미로서 *hear*의 상징처리단계로 볼 수 있다. (22c)는 아이들이 부모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어야한다는 의미로서 *hear*는 'obey'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영상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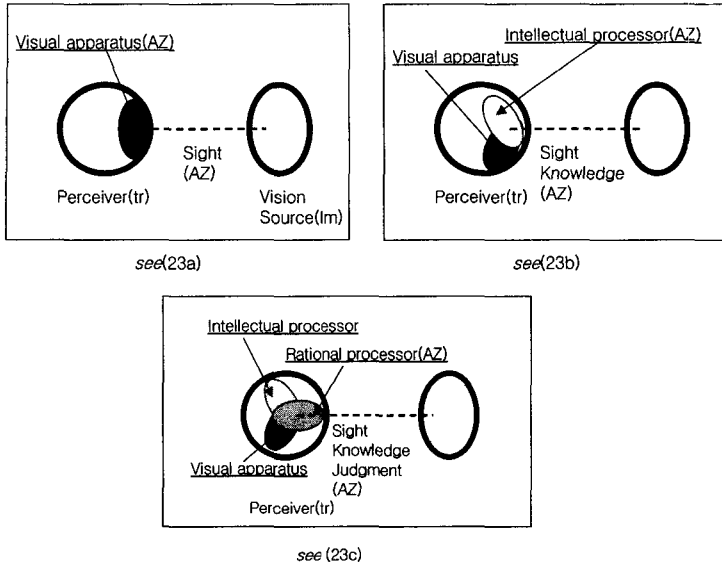


<그림 3> *hear*의 의미구조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각자의 역할은 어떤 처리과정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역할개념이 활성화되어 부각되어지지만, 지각자와 지각 대상간에는 *hear*의 의미기준에 맞는 sound가 활성화되어 떠오르며, 상징처리과정을 나타내는 (22b)와 (22c)에서는 sound와 인지(cognition)가 활성화에 들어온다. 이제 *see*가 사용된 다음 예문을 보자.

- (23) a. I *see* the cat on the mat.
- b. I *see* exactly what you mean.
- c. The philosopher teaches mankind to *see*.

(23a)는 단순한 신호처리 단계의 의미이며, (23b)와 (23c)는 상징처리 단계의 의미이다. (23b)는 1단계와 2단계가 연쇄된 의미이며, (23c)는 2단계와 3단계가 연쇄된 의미로서 'judge'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 이들 의미를 다음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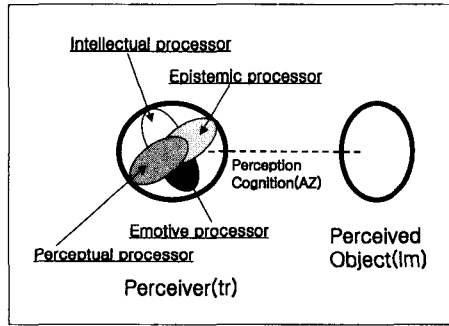


<그림 4> see(23)의 의미구조

즉 인간의 지각작용은 인지와 인식작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지각동사와 인식동사는 연쇄된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인간은 자기 주위의 사물이나 상황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신체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외부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정보를 또 얻는 인지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지각동사가 동일한 과정의 인지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ear*보다는 *see*가 정신적 영역의 인식작용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보를 얻는 것은 듣는 행위보다는 보는 행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며, 시각화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24)가 (25)보다 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은유개념이다.

- (24) SEEING IS KNOWING.
- (25) HEARING IS KNOWING.

이제까지 살펴본 영어 *see*와 *hear*의 의미구조를 다음과 같이 지각 동사의 의미구조로 일반화하여 도식화해볼 수 있다.



<그림 5> 지각동사의 의미구조

즉 지각자는 어떤 처리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지각 처리자(perceptual processor), 정서적 처리자(emotive processor), 지적 처리자(intellectual processor), 인식적 처리자(epistemic processor)로서의 역할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활성역이 달라진다. 이때 지각처리기능은 시각적 처리와 청각적 처리를 다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활성역으로 부각된 처리자와 지각대상물 사이에 지각작용 혹은 지각에 근거한 인지작용이 설정된다. 지각자(tr)와 지각대상물(lm)간에 발생하는 지각이나 인지는 신호처리, 혹은 상징처리를 나타내며 항상 활성역으로 부각되어진다. 그러나 다양한 역할이 잠재된 지각자에게 어떤 역할자가 활성역으로 부여되어 부각될지는 맥락 조율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see*, *hear*를 비롯한 지각동사의 다의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들 의미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구조 모형을 세워 보았다. *see*, *hear*는 신호처리 단계

의 신체적, 물리적 지각과정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인지과정을 통해 정서적 영역, 지적 영역, 인식적 영역의 의미로 확산되어 상징처리 단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은유개념을 근거로 함께 쓰이는 어휘에 따라 신체적 영역으로부터 정신적 영역으로 영역 이동이 가능하며, 지각 대상에 따라 맥락적으로 의미가 조율되어 부각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았다. 맥락에 따라 다르게 부각되는 의미영역은 의미구조모형을 설정할 때 활성화 개념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어 지각동사 특히 *see*와 *hear*의 다의적 의미를 얻어내는 도식적 의미구조 모형을 설정하였다. 지각주체가 지각대상을 단순한 신호 차원에서 지각하여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징 차원에서 그 의미를 인식하여 처리하는지에 따라 주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결정되며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지각과 인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의미모형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의 주로 *see*와 *hear*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다른 지각동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과제로 남아있다.

## 인용문헌

- Croft, William. "The role of domains in the interpretation of metaphors and metonymies". *Cognitive Linguistics* 4-4, 335-370, 1993.
- Cruse, D.A.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Dretske, Fred. *Seeing and Knowing*.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9.
- Fauconnier, Gilles. *Mappings in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7.
-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7.
- Lakoff, G. and Johnson, Mark.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0.
- Langacker, Ronald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Langacker, Ronald W.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1991.
- Rogers, Andy. "Three kinds of Physical perception verbs". *CLS* 7, 206~222, 1971.
- Sweetser, Eve E.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Sweetser, Eve E. and Fauconnier, Gilles. *Spaces, Worlds and Gramma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6.
- Taylor, J. R. *Linguistic Categor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Abstract]

### **A Cognitive Analysis on the Polysemous Perception Verbs**

In-Young Jhe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polysemous phenomenon of perception verbs in terms of metaphor and metonymy and suggest a model of cognitive semantic structure for them. English perception verbs are often used for representing a mental, cognitive activity as well as representing a physical, perceptive activity. This paper looks for a basis for the polysemous use in the creative system of metaphor and metonymy, especially in the meaning extension function of mind-as-body metaphor. English perception verbs show a good example of a metaphor of domain transfer from physical domain to mental or cognitive domain. This paper suggests the conceptual chain and the semantic structure for the perception verb to show the possibility of polysemy and contextual modulation.